

이병주 작품 마니아, 독서광 오홍근 씨

동맥으로 자음과 모음이 흐르는 사람 ‘빌리 오’

글_정윤희 기자 | 사진_박신우 기자



‘내 서재의 책들’ (<http://blog.naver.com/ohgn>)의 주인장 ‘빌리 오’ (Billy OH). 한국 이름은 오홍근이다. 오늘은 어떤 책이 올라와 있을까, 아침마다 궁금해질 정도로 매일 업데이트 되는 서평은 전문가 수준을 넘어선다. 마흔 일곱 살 된 남자의 취미가 ‘책하고 놀기’ 라니, 한 번 만나 봐야겠다는 생각이 절로 들었다. 안산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빌리 오를 만나기 위해 안양시 호계동에 위치한 그의 아파트에 찾아갔다. 집에 들어선 순간 책들이 눈에 먼저 들어왔다. 딸과 아들은 캐나다에서 유학중이라 아내와 둘이서 오붓하게 살고 있다. 이미 거실을 아늑한 서재로 만들어 놓았고, 거실도 모자라 방 한 칸을 서재로 꾸몄다. 동맥으로 자음과 모음이 흐른다는 사람은 ‘빌리 오’ 를 두고 하는 말인 듯하다.

작은 도서관을 방불케 할 정도로 주제별·인물별·신간도서별로 서가를 깔끔하게 정리해 두었다. 2,000여 권의 책을 정리하는 데 아내의 도움이 있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곁에 있던 그의 아내가 “손도 대지 못하게 한다”며 손사래를 친다.

그는 ‘책을 수집한다’ 는 말을 가장 싫어한다.

“돈을 모아야지. 왜 책을 모아요!”라고 말하는 그에게서 읽기 위해 살고, 살기 위해 책을 읽는 사람이라는 걸 느낄 수 있다. 그가 독서광이 된 계기는 시대적인 배경을 이야기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는 79학번이다. 그 학번이 “왜?” 라며 의문을 가질 수 있겠지만 그의 말을 듣고 보면 일리가 있다.

“79학번은 제대로 학교를 다니지 못한 사람들이에

요. 제일 불행한 세대죠. 1979년 10·26사건이 일어나 휴교됐고, 바로 겨울방학이 끝나고 1980년 봄 학기에 개론 첫 장 나가기도 전에 5·18민주항쟁이 일어나 또 휴교됐죠. 대학 졸업하는 4학년 때까지 휴교령이 반복 됐어요. 대학에 입학하면서부터 사회문제에 눈을 떴고, 자연스레 책을 읽는데 집중하게 된 거죠.”

79학번이라고 증명이나 해주듯 서가에 1979년도에 발행된 책들이 많다. 그 중 소설가 이병주의 《지리산》은 독서에, 책에 미치게 한 동기가 된 책이다.

올해 독서 목표는 슈테판 츠바이크와 박홍규 저서

술·담배·유혹에는 전혀 관심 없고 오로지 관심 분야는 ‘책’ 이다. 그 중에서도 인문사회와 경제 경영 분야이다. 매년마다 독서목표를 정해놓고 책읽기를 시작한다는 그는 올해 ‘슈테판 츠바이크’ 와 영남대 법대 ‘박홍규’ 교수의 저서를 섭렵하는 게 독서 목표이다. 박홍규 교수의 책은 번역서까지 합해 60여 권 되는데 지금까지 20% 진도가 나갔다. 체험하지 않은 지식을 책을 통해서 얻을 수 있기에 ‘사람’ 을 주목해 읽는다. 지금까지 책으로 만난 저자는 유시민, 진중권, 이덕일, 리영희, 유홍준, 김우창, 정운영, 정민, 복거일, 전해린, 김용옥, 이병주, 채계바라 등 나열하자면 한없다.

저자가 지은 책을 모두 읽고 인물별로 도서를 정리해두었기 때문에 흐름까지 파악할 수 있다. 60여 종에 이르는 ‘책에 관한 책’ 아래에는 자서전 코너가 마련돼 있다. 모택통, 마르크스, 등소평 등 대학시절부터 읽었던 자서전들이 모여져 있다. 서가정리는 곧 정보싸움이라고 설명한다. 책 제목만 이야기 해도 눈을 감고 손만 뻗으면 책이 잡히고, 위치가 바뀌어도 금세 알아버릴 정도이다.

유독 눈에 띄는 저자가 ‘소설가 이병주’ 이다. 이병주 작가는 《지리산》 《관부연락선》 《행복어사전》 《바람



올해 슈테판 츠바이크와 박홍규 저서를 읽는 게 독서 목표이다.

과 구름과 비》《산하》 등 80여 권의 작품을 남긴 소설가이다. 스스로도 '이병주 마니아'라고 소개하는 그에게 이병주는 특별한 존재이다. 이병주 작가의 작품은 모두 소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개정판이 나오거나 출판사가 바뀌면 계속 사들여 이병주 작품만 200여 권이 넘는다. 이병주 소설가가 기고했던 잡지인 <신문연구>까지 소장하고 있을 정도이니, 한 사람에게 미친다는 게 어떤 것인지 짐작하게 한다. <이병주 전집> 시리즈를 펴내는 한길사에서



20년 넘게 해온 신문스크랩으로 또 하나의 책을 만들어 놓았다.



잡지 창간호들과 신문.

에서 이병주 작가 애독자로 인정했고, 이병주 작가에 관한 한 유명인사이다. 출판사에서 주최한 <관부연락선>의 공간배경을 따라가는 여행에 그를 초청하기도 했고, 내년에 건립하는 '이병주 문학관' 기념사업회에서 그에게 원고를 부탁할 정도이다. 얼마나 책을 아끼는지 <지리산> 초판본을 랩으로 싸두었다. 겉에는 '78년 12월 25일 초판, 가격 1,500원' 이라고 써두었다. 이렇게 상할 염려(?)가 있는 책은 랩으로 정성스럽게 싸서 보관하고 있다.

또 다른 서재에서 <창작과비평사> <문학과지성사> <세계문학> <문학사상> <시사저널> <말> <씨네21> 등 문예지와 잡지의 창간호 40여 종을 보여줬다. 지금도 구독한다는 <창작과비평사>는 발행호 순서대로 꽂혀 있다.

20년 넘게 해온 신문 스크랩

책쟁이를 취재하러 갔다가 놀랐던 점은 '신문 스크랩' 이었다. 20년 넘게 신문스크랩을 해왔다는 그는 바지 주머니에 칼을 넣고 다닐 정도이다. 주말이면 아파트 재 활용 코너에 가서 신문 자르는 게 일이다.

서가를 소개해 주면서 북아트 김나래 씨의 작품 한 장판을 보여준 게 우연이 아니었다. 신경숙 작가가 조선일보에 연재했던 <푸른 눈물>을 프롤로그부터 에필로그까지 모두 스크랩해 하나의 책자 형태로 솜씨를 부려 만들었다. 연재가 끝나고 <리진>이라는 소설집으로 묶어 출간됐을 때 출판사에서 그를 초청하기도 했다. 허영만의 <식객>도 스크랩북으로 보기 좋게 만들었다. 지금은 공지영의 <즐거운 나의 집>과 김영하의 <퀴즈쇼>를 스크랩 중이다.

연재소설뿐만 아니다. 칼럼, 책코너, 연재물은 모두 스크랩 대상이다. 동아일보의 <책 읽는 대한민국> 1회부터 580회를 모아 책자로 만들었고, 2004년부터 연재된 <책갈피 속의 오늘>을 하루도 빠짐없이 모아 스크랩북

으로 만들었다. <책갈피 속의 오늘>은 그날에 대한 몇 년 동안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어서 글을 쓸 때 참고자료로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다. 몇 종의 신문 칼럼을 읽고 주제별로 스크랩을 해 수십 권의 책자로 만들었다. 주말에는 신문 가판대를 돌아다니면서 복색선이 나오는 일간지를 구입해 한 달 치를 묶어서 책자로 만드는 일도 빼놓지 않는다.

신문 스크랩을 광적으로 하는 이유는 기자가 되려는 꿈이 상실되었기 때문이다. 정말 신문기자가 되고 싶었지만 계속 낙방하는 바람에 다른 길을 걸어야 했던 기슴 아픈 사연을 고백한다. 결핍은 욕망을 만들어 냈고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해 신문을 스크랩하고, 책 읽고, 글을 쓴다. 친구들은 그를 '오작가' 라고 부른다고.

한 달에 들어가는 책값을 물어볼 때마다 시종 아내의 눈치를 보는 그이지만 아내의 사랑 덕분에 책 읽기도 즐겁다. 그는 아내가 친구를 만나러 갈 때에도 책 한 권씩 꼭 챙겨주는 자상한 남편이다. 아내가 드라마를 보고 있는 동안 책 한 권을 푹딱 읽어 내고, 출퇴근하는 차 안에서라도 읽고, 회사에서도 푹푹 읽는다. 다른 사람들이 술 한 잔 마실 시간에 그는 책을 읽는다. 책 읽기가 멋부리는 행위가 아니기에, 그의 서평을 기다리는 블로그 이웃들은 매일 일용할 양식처럼 그의 서평을 기다린다.

책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흥겹고 즐거우며 감탄할 수 있을까. 부부가 책과 함께 살아온 시간들이 책 속에 묻어나고, 향기로운 책 속에 기록치 않은 인생사가 담겨 있었다. **★**



이병주 작품만 200여 권이 넘는다.



<창작과 비평> 창간호와 제2호 창간호는 랩으로 싸두었다.